

되살아난 '메모리의 힘'... 반도체 수출 66% 차지

6월 메모리 수출 88억 달러... 2년여 만에 가장 큰 비중 AI 열풍 덕에 HBM 수출 폭증... 고부가 제품 빠른 회복 삼성전자 2분기 10조4000억 영업이익... 실적 개선 본격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업계 불황을 지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88억 달러로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65.8%를 차지했다. 이번 전체 반도체 수출 중 메모리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21년 12월 65.8%를 기록한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큰 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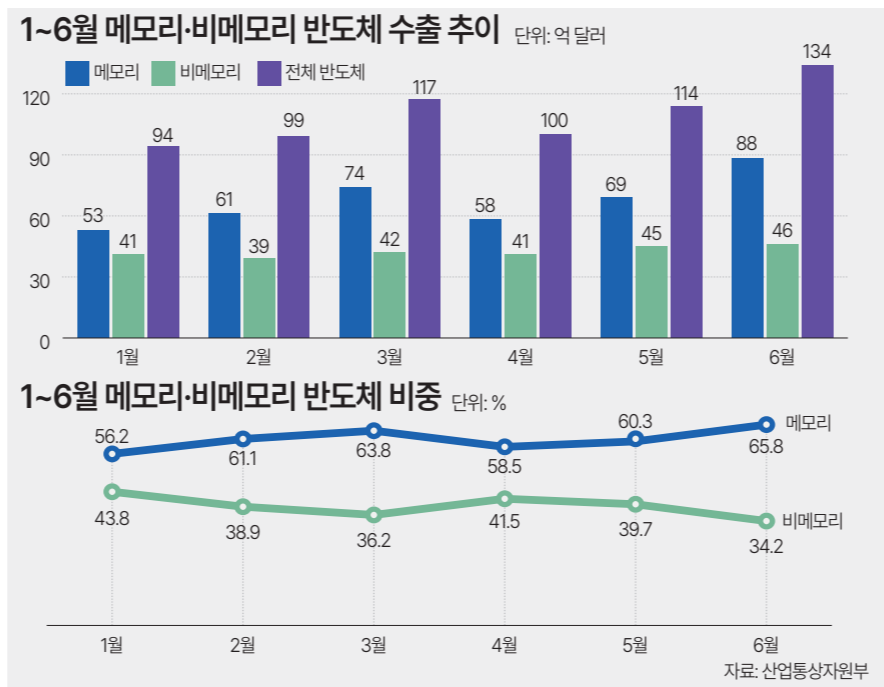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꾸준히 60% 이상 수준을 유지했다. 2018년에는 74.2%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수출 비중이 줄어든 것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이 시스템 반도체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면서다. 이후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2022년 메모리와 비메모리 수출 비중은 각각 57.1%·42.9%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각각 52.1%·47.9%를 나타냈다. 업계에서는 다시금 메모리 반도체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비메모리 반도체의 더딘 수출 증가세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빠른 수출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6월 반도체 수출 동향을 보면 전체 반도체 수출액은 134억2000만 달러(지난달 대비 50.9%↑)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인공지능(AI) 붐 덕분에 수요가 크게 증가한 HBM 등 메모리 수출액(88억 달러)과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41억 달러)은 각각 85%·9% 증가했다.

반도체 시장의 수요 회복과 함께 고부가 메모리 판매·제품 가격 상승도 메모리 반도체 수출의 빠른 회복에 역할을 하고 있다. AI 시장 확대로 HBM 등 고부가 메모리 판매가 늘었고 D램과 낸드의 평균판



매단가(ASP)도 상승했다. 다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D램과 낸드의 가격은 각각 13~18%·15~20% 늘어났다. 메모리 수출의 빠른 회복은 국내 주요 반도체업체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5월 올해 2분기 시장 전망을 넘는 10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고 밝혔다. 연합인포맥스 전망치에 따르면 SK하이닉스도 2분기 5조3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작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서 메모리 기여도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경기도 '리튬 취급 사업장' 안전 위반 사항 16건 적발

사업장 48곳 안전점검 실시 7건 소방 위반·9건 검출송치

경기도가 7일 화성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를 계기로 도내 전체 리튬 취급 사업장 48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벌여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소방재난본부·특별사법경찰단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16건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소방 관련 위반 사항 9건 등으로 이중 9건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검찰 송치 예정이다.

화성 A공장의 경우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은 물질 간 반응성을 고려해 일정 간격을 두게 돼 있으나 이를 어긴 것

로 확인됐다. 안전 B공장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특정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았고 펌프 C공장은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한 단속 및 적발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참여하여 안전 분야 컨설팅도 병행해 사업장을 지원한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등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소방재난본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험물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해 상설화하기로 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 370억 달러 '역대 최대'

대미 수출 비중 지난해보다 8.5%p 증가 올해 수출 목표 750억 달러 달성 전망도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이 대(對)미국 거래를 중심으로 선전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면서 반도체와 함께 한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370억1000만 달러(약 51조20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자동차 수출은 상반기 기준으로 2014년 252억3000만 달러(약 34조9000만 원)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지난해 356억5000만 달러(약 49조3000만 원)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6.5% 증가한 수치인데 9년 만에 최고 실적을 갱신하고 1년

만에 다시 이 기록도 넘어서는 등 수출 성장세다. 자동차 수출은 2021년부터 상반기 기준으로 4년 연속 전년 대비 수출 흑자 성장에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한국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작년보다 29.8% 늘어난 184억5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한국 자동차 전체 수출의 절반(49.9%)에 해당하는 규모로 자동차의 대미 수출 비중은 지난해(41.4%)보다 8.5%p 높아졌다.

수출 자동차 종류 중에는 전기차 수출이 올해 상반기 70억200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7.5% 줄었다. 올해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정체 현상의 영향으로 분석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이 대(對)미국 거래를 중심으로 선전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면서 반도체와 함께 한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된다. 지난해 대비 순수 전기차 수출의 대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와 내연기관차의 경우 각각 19.5%·7.2%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전기차 수출은 이미 지난달 작년 상반기 수출(2억5000만 달러)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등으로 미국에서 한국 전기차 판매 부진을 우려했지만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보하면서 수출 성장세에 기반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반도체 시장의 하락 사이클에서 자동차는 한국의 수출 최대 품목으로 떠오르며 전체 수출을 부양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수출이 상반기 역대급 기록을 내자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로 제시한 750억 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 완성차 수출액을 375억 달러(작년 동기 대비 6.5%↑)로 예상하는 등 올해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747억 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네카오' 데이터센터 배출 온실가스 줄이기

네이버 "재생에너지 확보" 카카오 "전력 사용 최소화"

네이버와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라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온실가스 줄이기에 힘쓰고 있다.

7일 네이버가 최근 공개한 '2023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수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보 및 사회적 감축 기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7만8884t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에서 2022년 8만6991tCO₂e로 늘었고 작년에는 8만9505tCO₂e로 1년 사이 2.9% 증가했다. 네이버는 특히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7%가 데이터센터와 사옥의 전력 사용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

생에너지 확보 및 사회적 감축 기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가동을 시작한 네이버의 두 번째 자체 데이터센터 '각 세종'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자연 바람을 이용한 서버실 냉각 방식을 채택했고 서버실에서 배출된 열기를 온수 공급에 활용하는 친환경 건물이다.

카카오 역시 데이터센터 운영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가 발간한 ESG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의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는 11만4022tCO₂e로 2022년(13만7908tCO₂e)에 비해 17.3% 감소했다.

카카오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 기술·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친환경 설비·수자원 관리 기법 등을 활용해 자체 데이터센터인 '데이터센터 안산'이 최대로 가동될 경우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약 30%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 가장 소중한 분께 ”

건강을 선물하세요



대한민국 NO.1 당큐락

마이ক্র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혈당 유산균

(24년 3월 기준)

국내 최초 · 국내 유일



더 알아보기



당큐락 전속모델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매원: (주)유한양행 | 연구개발: (주)에이투엔 | 제조원: 코스맥스엔비티(주)
*디에스티엘(23.01-12) 혈당 건강기능식품 매출액 1등, NS홈쇼핑(23.01-06) NS 혈당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1위